

# Column

## ‘2007 IHF 총회’ 치밀한 준비를...

### – 대만 아·태 지역회의를 다녀와서



글·안 병 문  
대한병원협회 국제이사  
인천성민병원 의료원장

2006년도 IHF 아시아 태평양 지역대회가 지난 4월 3일부터 5일까지 대만의 수도 대북시에서 열렸다.

스위스 접경지역인 프랑스 볼테어에 본부가 위치한 국제병원연맹(IHF)은 세계 50여 국가가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으며 매 2년(홀수해)마다 세계병원대회를, 세계대회가 없는 짝수해에는 보다 작은 규모의 지역대회를 개최한다.

각 대회의 주관자는 국제병원연맹이지만 통상 개최국의 병원협회와 공동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운영한다.

이번에는 주로 아시아 태평양지역을 중심으로 의료계 대표들이 모여서 병원 전반의 문제들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다. 약 8백명의 인원이 참가하였으며 이 중 250명이 외국에서 온 참가자들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단일 국가로서는 주최국인 대만다음으로 많은 34명이 참가하였다.

어찌 보면 이번 지역 대회는 작년 9월 프랑스 니스에서 개최되었던 제34차 세계대회의 2천명이나, 그 앞서 있었던 두바이에서 1500명이상이 참가하였던 직전 지역대회보다는 그 규모나 참가 인원 면에서는 다소 작게 보일런지도 모르겠다. 우리의 기대에 비해서는...

그러나 당장 내년에 세계대회를 성공리에 치루어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되도록 많은 인원이 그곳에 참석하여 내년 서울대회의 홍보를 해야만 하였다.

규모가 아주 큰 대회만 다녔던 필자로서는 대만의 지역대회가(그들의 국내 대회도 그리 작지는 않지만) 기대보다는 작다고 느껴졌는데, 몇가지 면에서 볼 때 우리와 비교되어 참고하고자 한다.

**대만병원협회가 국제회의를 치른 경험이 그다지 없었으며 회장과 사무총장이 바뀌지 몇 달이 채 되지 않았는데도 대회를 짜임새있게 잘 운영했다는 점이다.**

**대회운영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회장 바깥의 일반 시민들조차도 친절하고 주위환경도 깨끗했다.**

우선 그들은 국제적 규모의 대회가 자기 나라에서 개최되면 국가원수인 총통이 직접 참석하여 축하를 해 준다. 대회를 주관하는 단체에게 큰 격려가 됨은 물론 그 나라를 방문한 외국참가자들에게 대단한 호감을 갖게 한다. 첫째날 회의장 입구가 좀 삼엄한가 싶더니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인 천수이벤 대만총통이 직접 단상에 올라가 축사를 하고 축사를 마치고 내려와서는 앞자리의 모든 이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었다. 첫째날 저녁식사는 부총통이 직접 대접하고, 그 다음 날은 제삼인자라 할 수 있는 대북시장이 직접 저녁식사를 같이 하며 참석자 모두와 인사를 나누었다.

이렇게 그들은 정부와 민간단체가 혼연일체가 되어 행사를 같이 치룬다. 외국의 방문객들이 좋은 인상과 함께 호감을 갖게 됨은 물론이다.

그들의 화합하는 모습은 의료보험급여 심사청구에서도 잘 알수 있다.

대만병원협회회장은 매년 씨름을 한다. 정부의 보건성과 말이다.

대략 몇 %씩 올라간(국민소득이 향상되고 의료기술이 발전하면 의료비가 증가하리라는 것쯤은 그들이 잘 알고 있다.) 의료비를 더 많이 달라고 싸우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협회장은 대략 75%쯤되는 금액을 할당받아서 각 병원들에게 나누어 준다. 나머지를 의원(대부분 입원환자를 잘 보지 않는다), 치과병원 또는 한의원(여기서는 대체의학 또는 전통의학이라고 함) 등에 나누어 준다.

그런데 병원마다 특색이 있고 진료행태에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동일 질병이라 하더라도 치료비가 서로 많이 다를 수 있다. 이때 병원협회가 나서서 중재를 하고 조정을 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윤리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자율정화를 하는 셈인데 병원들끼리 서로 화목하여 별 말썽이 없다.

여기서 병원협회회장은 막강한 힘을 가진다. 그래서 매년 국가의 의료비예산을 짜느라고 협회가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씨름 아닌 씨름을 하는 것이다.

사실 대만은 의료보험제도가 우리나라보다도 늦게 도입되었다. 그럼에도 우리보다 별 탈없이 잘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는 별일 아닌데도 어거지 생떼를 쓰는 의료분쟁도 훨씬 적고 격렬한 노사분규도 없다.

이번 대회를 보면서 느낀 또 다른 점 하나는 대만병원협회가 국제회의를 치른 경험이 그다지 없었으며 회장과 사무총장이 바뀌지 몇 달이 채 되지 않았는데도 대회를 짜임새있게 잘 운영했다는 점이다.

대회운영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회장 바깥의 일반 시민들조차도 친절하고 주위환경도 깨끗하여 중국 본토와 비교가 되었다.

또 한 가지는 발표자와 좌장 중에서 중국계 외국인 학자들이 대거 참가했다는 점이다. 오래전 대만이나 중국본토를 떠나 미국 또는 영국 등지에서 연구와 활동에 정진하여 각 분야의 대가가 된 사람들이 참여하여 자기들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려고 애쓰는 점이 보기 좋았다.

**이제 내년이면 우리가 보다 큰 규모의 세계대회를 서울에서 할텐데,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줘야 하나, 그들에게 비쳐질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할 것인가...**

대회 마지막날 폐회식에서 내년 서울에서 열릴 제35차 세계대회의 홍보영상을 시연하고, 오후에는 대북시립의학대학원 부속 만방의원을 방문하였는데, 700여 병상의 현대식 건물로서 PET, Cyberknife 등 최신 의료장비를 갖춘 교육병원이었다.

이 병원은 No chart system으로서 IT를 많이 응용하여 전자팔찌를 환자에게 착용토록해 컴퓨터를 통하여 환자의 의무기록이나 상태 등을 점검하고 처방도 내리는 등 최신 치료 방법을 쓰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 환자의 처방이 바뀌는 사고도 줄일 수 있어 무엇보다도 Patient safety면에서 유익하다고 하였다.

이 병원은 의학교육시범기관으로서 병원의 한쪽 Wing을 할애하여 교육 센터로 쓰고 있었다. 그 중 한 방에 Sim-man이라고 하는 의료교육용 인형을 갖춘 모의 병실을 만들어 놓고 교육을 하고 있었다.

최근 의학교육에 실기가 중요시되면서 Simulation 교육의 필요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과목별로 상당히 상세히 가르치고 있었다.

또한 대만은 자체가 섬이면서 주위에 많은 섬들을 가지고 있는데, Telemedicine tool도 많이 발달하여 실용화하고 있었다.

우리 나라도 수천 개의 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Telemedicine tool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이제 내년이면 우리가 보다 큰 규모의 세계대회를 서울에서 할텐데,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줘야 하나, 그들에게 비쳐질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할 것인가... 조금은 걱정되면서 답답한 심정에 새삼 잘해보리라 다짐을 해본다.

며칠간의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기내에서 반가운 마음으로 국내 일간지를 집어 들었다. 신문 사설난에 식대의 건강보험급여화에 관한 사항이 눈길을 끈다.

마침 당시에 식대의 조정문제로 병원협회회장은 회의 일정 틈틈이 국내와 힘겹게 때로는 흥분해서 통화를 하던 참이라 궁금하여 신문사설난을 읽었다.

무슨 신문인지는 기억이 뚜렷지 않으나 “아직도 밥장사로 병원들이 돈을 벌려고 한다니...”라는 큰 활자 표제가 아이마를 세계 때린다.

순간 말초적 표현을 꼭 써야 직성이 풀리는 신문사의 높으신 어른들과 그 근본이유를 제대로 알려고 들지도 않는 그들의 무성의함에 대한 야속함보다는 밥값(식대라는 말보다 좀더 현실감있는 표현이라고 생각되어)이라도 남기지 않으면 안되는 우리네 처지가 쓸쓸하게 느껴졌다. **KHA**

(본대회에 참석하여 알찬 강연내용으로 객석에서 큰 호응을 받은 보건복지부 노연홍 본부장과 사비를 내고 참가한 병원장들, 그리고 그 가족들께 지면을 빌어 감사의 뜻을 전한다.)



아시아병원연맹 야마모토회장과 함께



대북시 중심가 백화점 입구에 있는 우리 여배우의 대형 사진